

【논문】

개연성 논증과 안티폰의 『사부 논변』*

전 현 상

【주제분류】 서양고대철학

【주요어】 개연성, 참, 논증, 소피스트, 안티폰

【요약문】 이 글의 목표는 소피스트들이 참보다 개연성을 더 가치있게 여겼다는 플라톤의 소피스트 비판의 의미와 타당성을 소피스트의 실제 저작 속에서 검토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이 글에서 집중적으로 검토될 텍스트는 안티폰의 『사부 논변』 1편이다. 이 작품은 소위 ‘개연성 논변’의 사례가 가장 풍부하게 발견되는 저작이고, 개연성에 관한 소피스트들의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개연성과 관련된 플라톤의 소피스트 비판이 어느 정도의 적실성을 가지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핵심적인 기초 자료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우선 안티폰과 『사부 논변』을 둘러싼 두 개의 일반적인 쟁점, 즉 연설가 안티폰과 소피스트 안티폰이 동일인인가의 문제와 『사부 논변』이 안티폰 본인의 저작인가의 문제가 간단히 논의된다. 이어서 필자는 『사부 논변』 1편의 내용이 과연 개연성과 참의 상대적 가치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가를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필자는 『사부 논변』 1편 마지막 부분에서 새로운 결정적 입증 근거가 제시되고 있다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을 반박한다. 그리고 최소한 『사부 논변』 1편에서의 안티폰에 대해서는 참보다 개연성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다는 플라톤의 비판이 적용되기 어려움을 보인다. 마지막 단락에서 필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개연성 논증을 소피스트에 대한 비판과 연계시키고 있는 『수사학』에서의 한 부분을 검토한다. 필자는 이 구절을 통해서 개연성과 참과 연관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소피스트 비판이, 소피스트 일반에 적용될 때, 어떤 취지로 이해될 수 있는가에 관한 하나의 제안을 제시한다.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332-2011-1-A-00044)

I. 들어가는 글

플라톤이 소피스트들과 연설가들을 비판하면서 종종 진리와 개연성의 구분을 끌어들인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들은 개연적인 것들 [ta eikota]을 참된 것들[ta alēthē]보다 훨씬 값어치 있는 것으로 보았고, 말의 힘에 의해서, 작은 것을 큰 것으로 큰 것을 작은 것으로, 새 것들을 옛 것으로 그 반대의 것들을 새 것으로 보이게 만들었다(『파이드로스』 267a6-b1).” 소피스트들의 말은 참이 아닌 단지 그럴듯함[euprepeia]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에우튀데모스』 305e1-6). 그럴듯함이나 개연성에 의존하는 논변은 허풍선이에 불과하며, 따라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흔히 기만을 저지른다(『파이돈』 92c11-d5).

이 글의 목표는 소피스트의 구체적인 텍스트 속에서 과연 개연성이 어떤 방식으로 논의되고 활용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개연성과 관련된 플라톤의 소피스트 비판이 정확히 어떤 점을 겨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의 비판은 과연 타당한 것이었는지를 논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필수적인 작업이 아닐 수 없다.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필자는 이 글에서 안티폰의 소위 『사부 논변 [Tetralogia]』1편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모두 세 편으로 이루어진 『사부 논변』은 현존하는 법정 연설문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이다. 특히 그 중 1편은 ‘개연성 논증(eikos argument)’¹⁾으로 불리는 논증 형식의 가장 풍부한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 개연성 논증은,

1) 논의의 편의상 ‘eikos’와 관련 파생어들을 이 글에서는 ‘개연성’과 관련 파생어들로 일관되게 번역하기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말의 ‘개연성’이 그리스어의 ‘eikos’가 가지는 다양한 의미의 층위를 포착하지는 못한다는 점을 글의 서두에서 밝혀두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문제의 ‘eikos’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개연적인 것[to eikos]은 많은 경우에 일어나는 것으로[hōs epi to poly ginomenon], 어떤 사람들이 규정하듯이 단적으로[haplōs] 그러한 것이 아니라, 달리 있을 수 있는 것들 것들과 관련해서, 하나의 사실이 그럴 법해지는 대상에 대해서, 보편적인 것이 개별적인 것에 대해 관련되는 식으로 관련되는 것이다(『수사학』 1357a34-b1).”

간단히 말하면, 어떤 사태가 개연적이라는 사실을 주장의 근거로 삼는 논증의 방식을 가리킨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사부 논변』 1편의 중요성은 단순히 그것이 많은 개연성 논증의 사례들을 제시한다는 점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점은 그 속에서 안티폰이 개연성 논증의 다양한 가능성과 더불어 그것의 타당성의 한계까지도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은 개연성에 관한 소피스트들의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개연성과 관련된 플라톤의 소피스트 비판이 어느 정도의 적실성을 가지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것이다. 우선 필자는 안티폰과 『사부 논변』을 둘러싼 두 개의 일반적인 쟁점, 즉 연설가 안티폰과 소피스트 안티폰이 동일인인가의 문제와 『사부 논변』이 안티폰 본인의 저작인가의 문제를 간단히 다룬다. 이어서 『사부 논변』 1편의 내용 검토가 뒤따르는데, 이 작품이 우리 학계에서 지금까지 거의 소개되고 논의된 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필자는 그 내용을 다소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다. 이어지는 단락에서 필자는 『사부 논변』 1편의 내용이 과연 개연성과 참의 상대적 가치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주는가를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서 필자는, 최소한 『사부 논변』 1편에서의 안티폰에 대해서는, 참보다 개연성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다는 플라톤의 비판이 적용되기 어려움을 보인다. 아울러 필자는 『사부 논변』 1편 마지막 부분에서 새로운 결정적 입증 근거가 제시되고 있다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을 반박한다. 마지막 단락에서 필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개연성 논증을 소피스트에 대한 비판과 연계시키고 있는 『수사학』에서의 한 부분을 논의로 끌어들이며, 개연성과 참의 상대적 가치에 관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소피스트 비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에 관한 하나의 설명을 제안한다.

II. 안티폰과 『사부 논변』: 두 쟁점

『사부 논변』 1편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전에, 이 작품의 저자를 둘러싼 두 개의 쟁점을 간략히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그 첫 번째의 쟁점은 『진리[*Alētheia*』의 저자로 알려진 소피스트 안티폰과 법정 연설문으로 명성을 떨쳤다고 전해지는 연설가 안티폰이 과연 동일인인가 하는 문제이다. 기원전 1세기까지는 이 둘은 동일한 인물로 의심 없이 간주되었다. 하지만 알렉산드리아의 문법학자 디뒤모스[*Didymos*]가 여기에 의문을 제기한 이후, 두 명의 안티폰 이론이 힘을 얻기 시작한다. 두 명의 안티폰 이론을 뒷받침하는 전통적인 근거는 문체 상의 차이, 즉 『진리에 관하여』와 연설문들이 전혀 다른 문체로 쓰여졌다는 사실이었다. 이에 반해 현대의 분리주의자들은 주로 둘의 사상적인 차이에서 근거를 찾는다. 즉 연설가 안티폰이 전통적 법을 준수하고 계급간의 차이를 인정하는 보수주의자라면, 소피스트 안티폰은 급진주의적인 평등주의자라는 것이다. 하지만 문체 상의 차이는 결정적인 근거라고 보기 어렵다. 상이한 성격의 주제를 다루기 위해 상이한 문체를 채택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념적인 차이와 관련해서도, 무엇보다 『진리』에서 개진되고 있는 주장들이 과연 안티폰 본인이 지지하는 입장인지 자체가 의심받고 있는 형편이다.²⁾ 따라서 이념적, 사상적 근거도 확정적이라고 보긴 어렵다.³⁾ 그렇다면 안티폰에 대한 전기적 근거들은 어떠한가? 안티폰에 관한 가장 오래된 두 개의 자료는 투퀴티데스와 크세논폰의 기록이다. 투퀴티데스는 연설가 안티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아테네인들 가운데 탁월성에 있어서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뒤떨어지지 않는 뛰어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아울러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데에도 능했다…그는 탁월한 말솜씨에 대한 명성으로 인해 대중에게 신뢰를 얻지

2) 커퍼드 2003, 190-191.

3) 문체와 사상적 측면에 관련한 분리주의에 대한 상세한 비판으로 Gagarin (2002), 37-52를 볼 것.

는 못했다.”⁴⁾ 반면 크세노폰은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트 안티폰 [Antiphōn ho sophistēs]” 간에 벌어진 세 대화를 전하면서, 후자가 전자의 추종자들을 끌어오려 했다고 말하고 있다.⁵⁾ 결국 관건은 투퀴디데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연설가 안티폰과 크세노폰이 소피스트라고 규정하고 있는 안티폰이 동일한 인물인가 상이한 인물인가가 되는 셈이다. 이 물음에 관련해서, 예를 들어 펜드릭(Pendrick)은 이 두 기록이 서로 조화되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분리주의의 입장에 선다. 그리고 그는 소피스트 안티폰의 단편의 편집본을 출판하면서 『사부 논변』을 포함한 연설적 작품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⁶⁾ 하지만 학자들의 대체적인 견해는 단일주의 쪽으로 기울고 있다.⁷⁾ 필자의 판단으로도, 사실 투퀴디데스와 크세노폰의 기록 사이에는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두드러져 보인다. 예를 들어, 우리가 소피스트들로 분류하는 인물들의 활동이 상당부분 연설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투퀴디데스의 전언에 등장하는 몇몇 묘사들, 예를 들어 안티폰이 탁월한 말솜씨로 유명했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의심을 샀다는 것 등등은 전통적으로 소피스트들에게 적용되어 온 전형적인 특징들이라는 점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에서, 다수의 학자들의 견해를 따라, 연설가 안티폰이 소피스트 안티폰과 동일인이라는 전제 하에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⁸⁾

『사부 논변』을 둘러싼 또 하나의 쟁점은 그것의 위작 여부, 즉 『사

4)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8.25.1~2. 번역은 김현 2008, 67을 기본적으로 따랐고, 필요에 따라 약간의 수정을 가했다.

5) 『회고(Memorabilia)』 I.6.

6) Pendrick 2010.

7) 단일주의를 지지하는 학자들의 목록은 Gagarin (2002), 52, note 51을 볼 것.

8) 단일론이나 분리론이나의 문제가 이 글의 이후 내용과 어떻게 연관되는 가라는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 마지막 단락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되었지만, 일단 간략히 말한다면, 분리론을 취하게 되면, 단일론을 취하는 것에 비해서, 개연성과 관련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소피스트 비판을 『사부 논변』 1편과 연관시키는 일이 더 큰 부담을 지게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연설가 안티폰도 『사부 논변』 1편에서 소피스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로 두 입장의 차이를 쉽사리 무시해버리는 것은 선결문제요 구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 될 것이다.

부 논변』이 과연 연설가 안티폰 본인의 저작인가의 여부이다. 이 논란은—사실 고대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았던 바였는데—『사부 논변』 속에 당시의 실제 아테네 법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발견된다는 지적에 의해 촉발되었다.⁹⁾ 여기에 문제상의 차이와 저술 시기의 불확실성이 추가적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이것들을 위작성의 결정적 증거로 보긴 어렵다. 이 모든 사항들은 『사부 논변』의 저술 목적과 성격을 고려하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후에 다시 논의되겠지만, 『사부 논변』은 실제로 법정에서 사용되었거나, 그것을 예상하고 쓰여진 저작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상의 법정 공간에서 특정한 논증 방식의 가능성과 한계를 탐색해보기 위해 쓰여진 저작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당대의 실제 법이나 소송절차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것이 위작이라고 결론 내리는 것은 성급한 일이 될 것이다. 『사부 논변』의 위작 의혹은 점점 약해지고 있으며, 안티폰의 초기 저작으로 보는 견해가 점차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¹⁰⁾

Ⅲ. 『사부 논변』 1편의 내용 분석

1. 고소인의 첫 번째 변론

이제 『사부 논변』 1편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해 보도록 하자. 『사부 논변』은, 그 제목이 시사하듯, 각 편이 네 개의 변론으로 이루어져있고, 고소인과 피고소인 측의 변론이 번갈아 두 번씩 제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법정연설문들과 달리 『사부 논변』에는 사건 상황에 대한 자세한 기술이 생략되어 있다. 따라서 사건에 대한 정보는 본문의 이런저런 부분들로부터 구성될 수밖에 없는데, 『사부 논

9) 이 논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발표된 W. Dittenberger의 일련의 논문들이었다. 이 문제를 둘러싼 논쟁의 전개 과정에 관해서는 Sealey (1984)를 참고할 것.

10) Gagarin 2002, 52-62.

변』 1편의 경우, 문제의 사건은 살인사건이고, 피살자는 깊은 밤에 노상에서 살해를 당했으며, 현장에서 피살자와 함께 공격을 받았던 시종 한 명이 피고소인을 살인자 중 한 명으로 지목하고는 오래지 않아 죽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부 논변』 1편은 고소인 측의 변론으로부터 시작된다. 변론은 고소인이 왜 개연성[*eikos*]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된다. 평범한 사람에 의해서 계획된 범 죄는 밝혀내는 일이 어렵지 않다. 반면 타고난 능력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범 죄가 계획된 경우, 그것을 포착하고 밝혀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 후자의 사람들은 안전하게 그 범 죄를 저지를 계획을 세우기까지 많은 시간을 들일 것이고, 의심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 일에 착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인지한다면, 배심원단은 어떤 개연성이라도 취해 그것을 적극적으로 증거 삼아 야만 한다[*kan hotioun eikos paralabēte, sphodra pisteuein autōi*](2¹¹).1.1-2).

고소인은 이어서 개연성을 근거로, 용의자의 범위를 좁혀나간다. 범 죄가 악한들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는 것은 개연적이지 않다. 범인들이 악한들이었다면, 그런 자들이 목숨을 건 위험을 무릅쓰음에도 불구하고 범 죄가 제공하는 명백한 이득, 즉 피살자의 외투를 그대로 남겨놓았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살인자는 취객도 아니었다. 그랬다면 그의 술친구들에게 범인의 정체가 알려졌을 것이다. 언쟁 끝에 피살자가 살해당한 것도 아니다. 어떤 사람도 깊은 밤에 으스스한 곳에서 언쟁을 벌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의도한 범 죄에 피살자가 당한 것도 아니었다. 만일 그랬다면, 함께 있던 시종까지 살해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2.1.4).

11) 중세 시대의 사본들에 포함되어 있는 안티폰의 법정 연설문 여섯 편 중 『사부 논변』 세 편은 순서상 2, 3, 4 번째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사부 논변』 1편의 참조번호는 2로 시작된다. 기원 후 2세기의 알렉산드리아의 문법학자였던 하르포크라티온이 『사부 논변』 1편의 한 구절(2.3.11)을 인용하면서 “두 번째 책에서 안티폰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중세 사본들의 배열 순서는 이미 고대부터 확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고소인의 개연성 논변은 범행의 동기로 향한다. 문제의 범행이 계획된 것이라면, 누가 그를 공격했을 것이 가장 개연적인가? 이전에 피살자로부터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그가 살아있는 한 앞으로 더 많은 피해를 입을 것이라 예상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은 바로 피고소인이다. 피고소인과 피살자는 오랫동안 적대적인 관계에 있어왔다. 전자는 후자를 여러 번 고발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후자는 후자대로 전자를 횡령죄로 고발해 그로 하여금 2 탈란트의 벌금을 물도록 만들었다. 결국 다음과 같은 것이 개연적이다. 피고소인은 피살자에 대한 적개심과 피살자의 힘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그리고 자신을 그의 적개심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그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했던 것이다(2.1.5-6).

이어서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살인자로 지목한 목격자[*paragegomenos*]가 있음을 지적한다.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시종은 이미 죽고 없다. 하지만 그는 숨을 거두기 전에 자신들을 공격한 사람들 중 하나로 피고소인을 지목했다(2.1.9).

이제 고소인은 논변 전체의 결론에 도달한다. 개연성에 의해서 입증되건 목격자에 의해서 입증되건, 어떤 식으로도 피고소인은 무죄로 선고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정의로운 일도 아니고 이로운 일도 아니다[*oute dikaiōs oute sympherontōs*]. 만일 목격자의 존재와 개연성에 의해서도 유죄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계획된 범죄에 대한 어떤 유죄 입증도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피고소인을 방면하는 것은 이로운 일도 아니다. 오염된 상태에 있는 피고소인이 거리를 확보하도록 허용한다면, 도시는 그로 인한 오염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이것은 모두의 이익에 반하는 일에 될 것이다(2.1.9-11).

2. 피고소인의 첫 번째 변론

피고소인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잘못이 아닐 것이라는 말로 변론을 시작한다. 비를 맞은 사람은 날씨가 좋아지면 한숨을 돌리게 된다. 병에 걸린 사람도 병이 떠나면 건강을 되찾게 된다. 불운에 처한 사람은 이렇게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 반대의 상태가 주는 이로움을 얻게 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자신의 처지는 그렇지가 못하다. 살아 생전 자신의 집안을 파괴시킨 장본인이었던 피살자는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 따라서 설사 자신이 무죄로 방면된다 한들, 피살자는 이미 자신에게 충분한 고통과 고난을 주는 데 성공한 셈이다. 자신이 정의롭고 법을 준수하는 사람임을 보인다 한들,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진짜 살인자를 자신이 찾아내지 못하는 한, 사자(死者)의 복수를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자신은 여전히 살인자로 의심받을 것이고, 고발당할 것이고,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2.2.1-2).

피고소인의 본격적인 변론은 학자들에 의해 ‘역-개연성 논증(reverse-probability argument)’이라 이름 붙여진, 보다 발전된 형태의 개연성 논증으로 시작된다. 고소인들은 그의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자신은 영리한 자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대로라면 자신은 또한 어리석은 자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만일 그들이 개연성을 근거 삼아, 강한 적개심을 가졌다는 이유로 자신을 의심한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은 더욱더 개연적이기 때문이다: 자신은 그 일을 하기 전에, 자신이 그러한 의심을 사게 될 것임을 예상했었을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만일 다른 어떤 사람이 피살자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면, 자신은 그것을 저지했었을 것이다. 그 의심이 자신을 향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2.2.3). 피고소인은 자신이 고소인들이 사용한 것과 정확히 같은 종류의 논변을 사용했음을 강조한다. 만일 고소인의 논변에 의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무죄이고 자신이 유죄임이 드러난다면, 마찬가지로 자신의 논변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의심스러워졌다면, 자신은 무죄로

여겨져야 마땅하다. 피고소인은 자신의 개연성 논증과 고소인의 개연성 논증은 똑같은 무게를 가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2.2.4).

역-개연성 논증은 수사학의 시조로 알려진 코락스와 테이시아스에 의해서 처음으로 고안된 것으로 추정된다.¹²⁾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음과 같은 코락스의 논변을 소개하고 있다. 힘이 약한 자와 힘이 센 자 두 사람이 싸움을 벌였고, 누가 싸움을 걸었는가를 둘러싸고 법정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힘이 약한 사람이 싸움을 걸었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논변에 의해서 반박된다. 힘이 약한 그가 싸움을 걸었다는 것은 개연적이지 않다. 하지만 역으로 힘이 센 자가 싸움을 걸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개연성에 근거한 반론이 준비되어 있다. 그가 자신이 의심받을 것임을 알면서도 싸움을 걸었다는 것은 개연적이지 않다(『수사학』 1402a17-20).¹³⁾ 이 논변과 앞서 제시된 피고소인의 논변의 유사성은 명백하다. 살인과 연관된 상황이 자신이 살인자임이 개연적이게 만들었다면, 바로 그 점이 역으로 자신이 살인자라는 것이 개연적이지 않음을 증명해준다.

피고소인은 이어서 개연성을 사건상황에 대한 대안적 설명을 위해 끌어들인다.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어떤 사람이 밤거리를 걷다가 외투

12) 개연성에 근거한 논증의 역사는 더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학자들은 예를 들어 『오뒤세이아』 22.321-325, 소포클레스의 『오이뒤푸스 왕』 583-615, 에우리피데스의 『히폴뤼토스』 983-1035 등에서 넓은 의미에서의 개연성 논증의 사례를 발견한다(Gagarin 2002, 29; Kennedy 1994, 25). 하지만 개연성 논증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과 활용은 기원전 5세기 중반 무렵에 수사학의 정립과 더불어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안티폰의 『사부 논변』 1편 외에도, 고르기아스의 『팔라메데스 옹호』는, 비록 ‘eikos’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련의 수사적 의문문들을 통해서 사실상 개연성 논증을 제시하고 있다.

13) 약간 다른 내용의 예가 『파이드로스』 273a-b에서 테이시아스의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Gargarin은 둘 중 아리스토텔레스의 예가 원래의 논증에 더 충실한 것이라고 추정한다(Gargarin 2002, 112, note 27). 테이시아스는 보통 코락스의 제자로 알려져 있으나, Cole (1991)은 두 사람이 동일인이라고 추정한다. 그에 따르면 ‘코락스[Korax]’-까마귀를 의미하는데-사실 테이시아스의 별명이었다.

때문에 살해당하는 일은 비개연적이기는커녕 개연적이다. 그의 외투가 그대로 있었다는 것은 그것이 비개연적이라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살인자들은 단지 그것을 벗길 시간이 없었을 뿐이고 사람들이 다가오자 공포에 질려 달아났을 수 있기 때문이다(2.2.5). 다음과 같은 일도 개연적이다. 피살자는 옷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목격하는 바람에 살해당했을 수 있다. 즉 피살자는 그가 목격한 사건을 신고하는 것을 두려워한 범인들에 의해 살해당한 것이다. 피고소인은 이어서 또 하나의 역-개연성 논증을 제시한다. 자신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그만큼 피살자를 증오하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자신보다는 그들 중 누군가가 피살자를 죽였다는 것이 더 개연적이지 않겠는가? 그들에게는 의심이 나에게 향하리라는 것이 분명했으니 말이다. 반면 나는 그들 대신에 내가 의심받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2.2.6).

이어서 피고소인은 유일한 목격자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시종의 증언이 무슨 값어치가 있던 말인가? 그가 공포의 순간에 살인자를 알아봤으리라는 것은 개연적이지 않다. 오히려 개연적인 것은 그가 그의 주인들에게 설득되었다는[*hypo tōn kyriōn anagigōskomenon*] 것이다.¹⁴⁾ 또 그 증언이 노예라는 사실은 그의 신뢰성을 의심스럽게 만든다. 일반적으로, 노예는 증인으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여겨진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들을 고문하지[*basanizein*] 않을 것이다(2.2.7).¹⁵⁾

14) 이 구절은 이 시종을 발견한 것이 피살자와 같은 집안 사람들이었음을 암시한다. 하지만 이 사실은 『사부 논변』 1권의 어디에서도 명시적으로 이야기되지 않는다. ‘*anagignōskein*’ 동사가 ‘설득하다’의 의미로 쓰인 것은 이 구절 외에는 오직 헤로도토스의 『역사』에서 뿐이다.

15) 그리스 법정에서 노예들이 증언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문을 통한 심문의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이 과정을 ‘*basanos*’라 불렀다. *basanos*에 대한 언급이 이런저런 기록들에서 발견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실제 재판에서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쳤는가는 사실 분명치 않다. 소송 당사자 중 한 쪽이 다른 한 쪽의 노예에 대해서 *basanos*를 요구했을 때, 만일 후자가 이 요구를 받아들여 *basanos*가 실제로 수행되었다면, 그 결과는 재판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갈린다. 어떤 학자들은 그 결과가 결정적이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더 이상의 재판이 불필요해질 수도 있었다고 주장한다(ex. Headlam, Mirhady).

피고소인은 이어서 또 하나의 역-개연성 논증을 제시한다. 만일 개연성이 자신에게 참이나 다름 없는 반대증언을 한다고 생각된다면, 더욱더 개연적인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범행을 안전하게 저지를 생각이 있었다면, 나는 그 노예가 자신을 목격하도록 현장에 있느니 보다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저지르게 하고, 자신은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편을 택했을 것이다(2.2.8). 피고소인은 자신이 현재 처해있는 위험과 문제의 범죄에 수반하는 위험의 상대적 크기를 잘 알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자신은 전자가 후자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몰랐을 만큼 정신 나간 사람은 아니다(2.2.9).

마지막으로, 피고소인은 자신이 과거에 도시를 위해 행했던 일들과 봉사들이 자신의 방면을 정당화할 이유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피고소인은 도시를 위해 한 모든 일에 있어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다. 이것은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며, 이러한 자신을 불경스럽고 수치스러운 죄목으로 고발해서는 안 될 것이다(2.2.12).

3. 고소인의 두 번째 변론

고소인의 두 번째 논변은 새로운 논증을 제시하기보다는 피고소인이 앞서 제시한 논변들을 반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소인은 우선 살인자들이 피살자의 걸옷을 벗길 겨를이 없이 도망갔을 수 있다는 피고소인의 주장(2.2.5)에 대해서, 만일 그랬다면, 목격자인 노예가 훨씬 더 일찍 발견될 수 있었을 것이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임을 지적한다. 피고소인이 또 다른 가능성으로 이야기한 것, 즉 피살자가 범죄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에 살해되었을 가능성(2.2.6)은 어떤가?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

만면 어떤 학자들은 *basanos*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인 것이었으며, 결코 최종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고 본다(ex. Thür). 학자에 따라서는 *basanos*를 일종의 수사학적 제스처로 보기도 한다. 즉 그것은 상대방이 그것을 거부할 것을 예상하면서, 자신이 그만큼 자신이 결백함에 자신이 있음을 배심원들에게 보이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이다(ex. Gagarin 1990). 이 논쟁에 관한 개관으로는 Mirhady (1997)을 볼 것.

면, 같은 시간에 일어난 다른 범죄가 있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범죄는 신고된 바가 없다(2.3.2).

자신보다 피살자를 덜 증오한 사람 중 누군가가 오히려 범인일 개연성이 더 높다는 피고소인의 논변(2.2.6)에 대해서, 고소인은 덜 위협을 무릅쓸 사람—즉, 고소인보다 덜 피해자를 증오한 사람—이 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즉 피고소인—에 비해 더 피살자에 대해서 음모를 꾸밀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후자의 경우, 그가 가진 두려움과 부정의는 조심스러움을 없애기에 충분하다. 반면 전자의 경우, 발각될 위협의 부담과 수치심이 범행으로 얻게 될 이득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들이 설사 범죄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들은 충분히 마음의 걱정적인 부분[*to thymoumenon tēs gnōmēs*]¹⁶⁾을 정신차리게 만들 수가 있다(2.3.3).

피고소인이 목격자인 노예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도 잘못이다.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고문에 처해지는 대신 자유를 얻는다.¹⁷⁾ 예를 들어 그들이 절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주인들과 공모해 진실을 덮고자 할 경우에만, 우리는 그들을 고문해 진실을 얻어낼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2.3.4).

피고소인이 현장에 있기보다는 없는 쪽이 개연성이 더 크다는 주장(2.2.8)에 대해서도 고소인은 그렇지가 않다고 말한다. 다른 사람을 시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여러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주모자를 발설할 위험이 존재하고,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열심히 일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2.3.5).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서 피살자로부터 고발을 당했을 때 감수해야 할 위험과 현재 법정에서 감수해야 할 위험의 상대적 크기와 관련해서도(2.2.9), 피고소인이 전자를 더 크게 생각했다고 믿을 이유가 있다. 일단 논변을 위해서, 두 경우 모두 무죄와 유죄로 판결이 내려질 확률이 반반이라고 해

16) Sprague는 ‘the passionate part of their character’로, Maidment는 “the anger in their hearts”로 옮기고 있다.

17) 이 구절의 정확한 의미는 불분명하다. Maidment은 문제의 노예가 주인을 위해 희생당했고, 죽음을 무릅쓰고 주인을 지키고자 하는 노예는 통상 자유를 상으로 얻기 때문에, 그 노예는 사실상 자유인으로 여겨져야 하고, 따라서 그를 고문하는 것을 옳지 않다는 의미로 이 구절을 해석한다(Maidment 70-71).

보자. 만일 피살자가 살아있었다면, 피고소인이 범정에 서지 않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반면 만일 그가 죽은 상태라면, 자신이 살인자임이 발각되지 않아서 범정에 서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게 된다(2.3.6).

고소인은 이어서 피고소인이 제시했던 최초의 역-개연성 논증, 즉 그가 가장 의심받을 인물이기 때문에 무죄라는 주장(2.2.3)을 반박한다. 만일 잠재적 피살자가 살아 있음으로 해서 가장 큰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자신이 받게 될 의심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억제했다면, 다른 누구도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보다 덜한 위험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위험보다는 의심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일을 저지르는 것을 덜 내켜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2.3.7).¹⁸⁾

피고소인이 도시에 여러 기여를 했다는 사실(2.2.12)은 그의 재산이 많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많은 재산은 살인의 좋은 동기가 된다. 피고소인은 그의 재산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2.3.8). 마지막으로 고소인은 다시 한 번 개연성에 의존해야 할 필연성을 강조한다. 개연적인 살인자가 아니라 실제 살인자를 찾아내야 한다는 피고소인의 말은 옳다. 하지만 실제로 살인을 저지른 자가 발견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개연성에 의존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 증거는 다른 누구도 아닌 피고소인이 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종류의 범죄는 은밀하게 행해지지, 증인 앞에서 행해지지

18) 이 논변의 의미에 관해서는 두 개의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의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살인자로 의심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정도는 모두가 마찬가지로이다. 따라서 피고소인보다 살인의 동기가 약한 모든 사람들은 그만큼 의심에 대한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큰 만큼 그들은 살인을 저지를 개연성이 더 적어지게 된다. 또 하나의 가능한 해석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살인 동기의 정도에 따라 각 사람은 그 정도만큼 개연적이거나 비개연적인 살인용의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개연성 혹은 비개연성의 정도만큼, 각 사람은 범죄를 피할 더 혹은 덜 강한 동기를 가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피고소인과 마찬가지로의 정도로 범죄를 피할 동기를 가지게 될 것이다 (Gagarin 2002, 114). 필자는 개인적으로 전자의 해석에 더 끌리지만, 후자의 해석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4. 피고소인의 두 번째 변론

피고소인은 2.3.2에서 제시된 고소인의 논변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다. 그 논변에 따르면, 누군가 피살자들이 공격 당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면, 그가 살인자를 분명히 알아 보고 즉시 피살자들의 가족에 알렸으리라는 것이 더 개연적이다. 하지만 그런 목격자는 없었고, 고소인은 이를 근거로 2.2.5에서의 피고소인의 논변, 즉 걸옷을 노린 강도가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자 황급히 도망갔을 개연성이 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하지만 한밤중에 죽어가는 사람과 마주쳤을 때, 달아나는 대신 목숨을 걸고 살인자를 찾아 나설 만큼 대담하고 용기 있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이 행인들은 사실 개연적인 행동을 한 것이다. 그리고 그렇다면, 걸옷 때문에 피살자들을 죽인 자들의 혐의는 벗겨지면서, 피고소인을 향한 의심은 거두지 않는 것은 적절치 않다(2.4.5).

이어서 피고소인은 자유인보다 시종의 증언이 더 신뢰할 만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실을 비판한다. 전자의 경우 거짓증언의 대가는 가혹하다. 그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상실하고 벌금까지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문도 받지 않는 노예에게 무슨 벌이 내려질 수 있겠는가? 그는 거짓 증언의 대가를 두려워할 일이 없다. 따라서 그가 나와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사주로 위증을 했다고 해도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2.4.7).

이어지는 단락(2.4.8)에서 피고소인은 앞서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사건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개연성을 근거로 해서[*ek tōn eikotōn*]가 아니라 사실에 의해서[*ergōi*] 보이겠다고 말한다. 그는 그날 집에서 잠들어 있었으며 이를 뒷받침해 줄 많은 노예들이 있다. 이를 확인하고 싶다면 자신이 소유한 노예들 중 누구든 고문해도 무방하다[*pantas paradidōmi basanisai*]. 그날은 평범한 날이 아니라 디이폴레이아[*Diipoleia*] 축제일이었다. 따라서 그 노예들은 그 날을 잘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일견, ‘ta

eikota'와 '*ergon*'의 대조를 통해서, 안티폰은 이제까지의 논의와 분명히 명확히 구분되는 새로운, 그리고 어찌면 더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듯 보인다. 다음 단락에서 필자는 이 점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고찰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피고소인은 자신이 부자라는 사실이 자신이 범인임을 더 개연적이게 한다는 고소인의 논변에 답한다. 일반적으로 부자들은 안정된 사회 질서를 선호한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이 살인을 저지르지 않는다는(2.4.9).

IV. 개연성 논증의 한계와 『사부 논변』 1편

이제 『사부 논변』 1편이 개연성에 대한 소피스트들과 연설가들의 생각, 그리고 나아가 그들이 참보다 개연성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다는 플라톤의 비판과 관련해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가를 생각해 볼 차례이다.

일단 우리는 피고소인의 두 번째 변론 끝부분(2.4.8)에서 제시되고 있는 새로운 증거의 의미에 대해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가가린(Gagarin)은 이 증거가 개연성 논증의 한계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우선 그 증거는 개연성이 아닌 사실 [*ergon*]에 근거하고 있음이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안티폰은 그것을 사부 논변의 네 번째 논증의 끝 부분에 위치시킴으로써 사실상 그것에 대한 반론이 불가능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런 점들을 근거로, 가가린은 2.4.8에서 제시되는 증거가 개연성 논증의 가치가 한정적임을 보이는 결정적인 근거로 의도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마지막 순간에 개연성이 아닌 사실에 근거한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안티폰은 개연성 논증은 후자에 비해서 적은 가치를 가진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¹⁹⁾

19) Gagarin 1994, 64; Gagarin 2002, 118. Maidment 역시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피고소인의 알리바이가 그 이전의 논변에서 발견되지 않는 사실적 요소를("a touch of realism") 갖는다고 본다(Maidment, 51).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우리는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 우선 우리는 2.4.8에서 피고소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인들이 자유인이 아닌 노예 신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은 통상 신뢰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반드시 고문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물론 그의 알리바이를 증언해 줄 노예들이 하나가 아닌 여럿이라는 사실이 좀 더 신뢰성을 더해준다고 말할 수는 있을 지 모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노예의 신분이고, 따라서 피고소인이 그들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가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는 일이다. 개연성이 아닌 사실에 근거한 증거라는 그의 주장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는 없는 일이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해당 증인의 신뢰성이 확보된 다음에야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2.4.8에서 제시되는 피고소인의 알리바이는 개연성 논증을 넘어서는 결정적 증거로 의도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오히려 그것은 2.3.4와 2.3.5에서 고소인이 제기한 논변에 대한 맞대응으로 읽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2.3.4에서 고소인은 죽은 노예의 증언을 신뢰할 근거가 있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2.3.5에서는 피고소인이 현장에 있었을 개연성을 주장한다. 2.4.8에서 제시되는 피고소인의 알리바이는 이 둘 모두에 대한 반격이 된다. 2.3.4의 논변에 대해서 피고소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셈이다. 고소인이 죽은 노예의 말을 믿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나는 내 알리바이를 뒷받침할 더 많은 수의 노예들을 가지고 있다. 2.3.5의 논변에 대해서 그는 고소인의 개연성 논증의 힘을 다수의 증인의 힘으로, 말하자면, 상쇄시킨다. 결국 2.4.8에서 나타나는 안티폰의 의도는 지금까지의 증거들을 압도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었다기보다는, 앞서 고소인의 논변에 의해서 기울어진 듯 보이는 양 측 사이의 균형을 복구하는 것이었다는 것이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논변들이 대칭을 이루며 차례로 등장한다는

점은 『사부 논변』 1편 전체가 보이는 두드러진 특징이다. 한 편에서 제기된 개연성 논증은, 대부분의 경우, 반대편에서 제기되는 개연성 논증 혹은 역-개연성 논증과 대칭을 이룬다. 이 사실은 『사부 논변』이 소위 ‘반론[*antilogiae*]’의 전통에서 쓰여진 저작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점은 『사부 논변』의 일차적 목적이 독자들을 특정한 결론으로 설득하는데 있지 않음을 함축한다.²⁰⁾ 반론이 취하는 일반적 형식, 즉 하나의 주장 혹은 논증에 대해서 그것에 반대되는 주장 혹은 논증을 제기하되, 그 둘 중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최종적 판정을 내리지 않는 형식은 설득이라는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부 논변』의 반론적 성격을 상기한다면, 2.4.8에서 안티폰이 자신이 결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종류의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주장의 문제점이 다시 한 번 분명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티폰이 『사부 논변』 1편에서 개연성 논증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그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입을 빌어서, 『사부 논변』 1편 전체를 통해 일관되게, 개연성 논증은 오직 사실에 대한 직접적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수단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고소인의 첫 번째 논변에서, 고소인은 개연성 논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히 밝힌다. 그 이유는 범죄와 관련된 사실이 우리에게 쉽게 포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말은 만일 그 사실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줄 증거가 주어진다면, 그 증거에 비해 개연성에 의존한 논증은 상대적으로 적은 가치를 가질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²¹⁾ 피고소인은 그의 첫 번째 변론의 대부분을 고소인이 제시한 논증들을 개연성을 근거로 하나하나 반박하는 데 할애하고 있다. 그는 심지어 유일한 목격자의 증언까지도 개연성의 문제로 취급한다. 그는

20) Gagarin 2002, 55.

21) 이 과정에서 안티폰은 개연성 논증의 한계에 관한 메타담론 외에도,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두 종류로 구분하는 또 하나의 메타담론을 제시한다. 그 두 종류의 증거는 각각 ‘개연성의 증거’와 ‘목격자의 증거’라고 불릴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점에서, 『사부 논변』 1편의 목표는 이 두 종류의 증거의 효력과 한계를 시험하고 고찰해보는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개연성이 자신의 편을 들고 있다고 결론 내린다. 하지만 그는 즉각 개연성 논증의 한계를 지적한다. 설사 개연성이 자신과 반대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자신이 살해자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당신들의 의무는 살인자들을 고소하는 것이지, 살인을 할 이유를 가진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 아닙니다(2.2.10).” 결국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개연성 논증에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셈이다. 그것과 균형을 이룰 개연성 (혹은 역-개연성) 논증을 제시하는 것이 그 하나이고, 개연성 논증 자체가 가지는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 나머지 하나이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두 번째 공방에서도 개연성 논증의 가치와 효력 범위에 관한 일종의 메타 담론이 다시 등장한다. 고소인은 개연성 논증이 오직 실제 살인자가 발견되지 않는 상황에서 효력을 가진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한다. “살인자들은 살인을 저질렀을 개연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살인을 저지를 사람들이라고 그가 말했을 때, 그는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 옳게 말한 것입니다(2.3.8).” 피고소인 역시 개연성 논증의 한계를 적시한다.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자신에 대한 고소는 잘못된 것이다. “그들은 단지 누가 그를 죽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를 살인자라 부르는 것입니다(2.4.2).”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사부 논변』 1편에서 안티폰이 한편으로는 (역-개연성 논증을 포함한) 개연성 논증의 활용 범위를 탐색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의 상대적 가치와 한계를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개연성 논증은 사실에 대한 직접적 접근이 불가능할 때 의존해야 할 불가피한 수단이며, 그것의 가치는 그런 점에서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이 사실은 개연성과 관련된 플라톤의 소피스트 비판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시각을 제공한다. 만일 소피스트들이 참이 아닌 개연성을 더 가치있게 여긴다고 말하면서 플라톤이 염두에 둔 것이 소피스트들은 객관적 사실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거나 그것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었다면, 최소한 『사부

논변』 1편에서의 안티폰은 이 비판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곳에서 안티폰은 객관적 사실의 존재를 결코 부정하고 있지 않으며, 개연성 논증들은 객관적 사실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없는 경우 채택해야 할 차선책임을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부 논변』 1편이 가용한 모든 수단을 통해 문제의 사건의 진실에 근접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음 또한 명백하지 않은가? 그리고 이런 점에서, 소피스트들이 사태의 진실에 관심이 없었으며, 오직 개연성, 좀더 정확히 말하면, 대중들에게 그럴법해 보이는 것들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비판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 아닌가? 하지만 이러한 비판은 최소한 『사부 논변』에 대해서는 적절한 것일 수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사부 논변』은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가상의 사건을 다루고 있고, 가상적 사건의 진실을 규명한다는 것은 성립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어진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 그리고 특정한 결론으로 청자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 『사부 논변』의 목적이 될 수 없음을 상기해야 한다. 『사부 논변』 1편의 경우 안티폰의 목표는 진실의 규명이나 설득이 아니다. 그의 목표는 개연성 논증이라는 설득의 도구를 풍부하고 예리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사부 논변』이 기본적으로 반론의 전통 속에 놓여있는 저작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반론의 형식은 설득을 위한 틀로는 부적합한 형식이다. 대신 반론의 형식이 안티폰에게 제공한 것은 상대의 논변을 뒤집는 논변이 번갈아 지속적으로 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바탕이자 틀이었다. 『사부 논변』이 가지는 특별한 목적을 고려한다면, 여기에서 안티폰이 사건의 객관적 진실의 규명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는 것은 부적절한 일이 될 것이다.

V. 개연성과 소피스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비판의 의미

앞 단락에서의 논의로부터 분명해지는 것은 『사부 논변』 1편에서의 안티폰은 개연성 논증의 힘을 보여주면서도, 그리고 그것을 새롭게 계속 산출해 낼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면서도, 객관적 진리에 대한 불가지론(agnosticism)이나 상대주의(relativism)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이다. 『사부 논변』은 이론적이기보다는 실용적인 목적을 염두에 둔 저작이며, 즉 실제의 법정에서 활용 가능한 논증의 테크닉을 연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작품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법조인을 위한 논리』 정도의 제목이 붙어야 할 이 저작이 불가지론이나 상대주의와 같은 강력한 인식론적 논제를 주창하거나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할 이유는 전혀 없다. 하지만 플라톤이 소피스트들을 개연성과 참의 상대적 가치와 관련해 비판할 때, 그는 분명 그들이 천명하거나 전제로 하고 있는 강력한, 그리고 동시에 그가 보기에는 부당한 인식론적 논제 때문에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²²⁾ 그렇다면 이러한 플라톤의 비판은 완전히 타깃을 벗어난 것인가? 이 문제에 관해서 하나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1402a7-28이다. 이하에서 필자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개연성에 관한 플라톤의 소피스트 비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설명을 제안해보도록 하겠다.

『수사학』 1402a7-28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소위 생략삼단논법 [*enthymēma*]에서 발생하는 오류의 유형 중 하나로, 단적으로 개연적인 것 [*haplōs eikos*]과 어떤 점에서 개연적인 것 [*ti eikos*]을 혼동하는 오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 오류를 설명하기 위해 그는 아가톤

22) 최소한 그것이 주요한 소피스트 연구가들이 플라톤의 비판을 이해하는 방식이었다. 예를 들어, Guthrie 176-188을 볼 것. 그는 진리에 관한 상대주의가 수사학의 이론적인 기반(theoretical basis/foundation)이었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ex. 180, 183).

의 말을 인용한다. “인간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일이 개연적[eikos]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개연적이지 않은[ouk eikos]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개연적이지 않은 일이 개연적이라는 이 역설적인 명제는 다음과 같은—잘못된—추론의 결과이다. 개연적인 것과 어긋나는[para to eikos] 일은 일어난다. 따라서 개연적인 것과 어긋나는 일은 개연적이다. 그렇다면 개연적이지 않은 것은 개연적이다. 하지만 이것은 단적인 개연성과 어떤 점에서의 개연성을 구분하지 않은 데서 발생한 오류일 뿐이다. 이것은 쟁론적 논변들 속에서, ‘어떤 관점에서[kata ti]’, ‘무엇과 관련해서[pros ti]’, ‘어떤 식으로[pēi]’ 등을 붙이지 않음으로 해서 생겨나는 속임수[sykophantia]와 유사한 것이다.²³⁾ 아리스토텔레스는 코락스의 기술[hē Korakos technē]이 바로 이 바로 이 주제[topos]로 성립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앞서 논의되었던, 강자와 약자 간의 폭행의 예를 제시한다. 일견 이 예에서 강자와 약자는 모두 개연적인 폭행자라는 결론이 내려지는 듯 보인다. 하지만 우리는 단적으로 개연적인 것과 이야기된 특정한 방식으로[ōsper eirētai] 개연적인 것을 구분해야 한다. 약자가 폭행자임이 개연적인 것은 오직 후자의 방식으로만이다. 흥미롭게도,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로 다음 구절에서 ‘더 약한 것을 더 강한 것으로 만든다는 것[to ton ēttō logon krittō poiein]’이 그것을 가리킨다고 말한다. 그는 소피스트들을 겨냥해 사용되는 이 유명한 규정²⁴⁾을 두 종류의 개연성간의 혼동 혹은 그것의 악용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그것을 다시 프로타고라스의 선언[to Prōtagorou epangelma]과 연결시킨다. 사람들이 프로타고라스의 선언에 화를 낸 것은 정당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짓이고, 참이 아니라 의견상의 개연성[phainomenon eikos]이며, 수사술과 쟁론술 외의 다른 어떤 기술에 속하지 않는 것이

23)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예로 ‘있지 않은 것도 있다’, ‘알려지지 않은 것도 알려져 있다’를 든다. 정확히 말하면, 이 명제들 각각은 ‘있지 않은 것도 어떤 점에서는 있다’, ‘알려지지 않은 것도 어떤 점에서는 알려져 있다’를 의미하는 것이다.

24) Cf. 아리스토폴라네스, 『구름』 889-1104; 플라톤, 『변명』 18b.

기 때문이다(1402a26-28). ‘프로타고라스의 선언’이 가리키는 것은 아마도 저 유명한,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는 그의 주장(『테아이테토스』, 152a)일 것이다.²⁵⁾ 아리스토텔레스는 프로타고라스의 이 유명한 주장을 두 종류의 개연성을 뒤섞는 오류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여기서 의도한 바는, 아마도, 프로타고라스의 상대주의가 다음과 같은 혼동에서 유래했거나 그것을 의도적으로 악용했다는 것일 것이다. 그 혼동은 서로 상반되는 현상들—그래 보이는 것으로서, 이것들은 모두 개연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에 관하여, 그것들 사이에 아리스토텔레스의 표현으로는 ‘단적으로 개연적인 것’과 단지 ‘어떤 점에서 개연적인 것’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가 전혀 없는 것처럼 간주하는 것이다. 두 개의 상반되는 설명이 존재할 때, 그것이 설명하는 사태가 필연적이지 않은 한, 그 두 설명 모두에 대해서 그것들 각각을 넓은 의미에서 개연적으로, 즉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연성은 대칭적인 것이 아니라 비대칭적이다. 즉 둘 중 보다 더 개연적이고 객관적 사실에 근접한 사태가—이때의 개연성의 의미에 대해서는 물론 세심한 철학적 반성이 필요하겠지만—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 둘 중 어느 쪽이 단적인 의미에서 개연적인지, 혹은 더 개연적인지를 판정할 수 있고 그것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소피스트들은 그런 구분의 가능성을 무시하거나 의도적으로 외면했고, 사태의 진실을 알아내려는 혹은 최소한 그것에 근접해가려 애쓰는 대신, 하나의 개연성을 또 하

25) 또 하나의 가능성은 현재는 소실된 『신에 관하여』의 첫 구절이다. “신들에 관해서 나는 그들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들이 어떤 모습인지도 알 수 없다. 앎을 방해하는 많은 것들과 불명확성과 인간의 삶의 짧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단편 DK 80 B4 = DL 9.52).” 만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구절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그는 문체의 혼동 혹은 전략을 일종의 불가지론과 연결시키고 있는 셈이다. 반면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는 주장이었다면, 그는 그것을 상대주의와 연결시키고 있는 셈이 된다.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염두에 두고 있던 구절이 후자의 구절이었다는 것이다 (Grimaldi vol. II 353, Kennedy, 189).

나의 개연성으로 맞세우는 데에만 열중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을 자랑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프로타고라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상반되는 개연성이 성립하니 둘 사이에 어느 한 쪽을 편들 수 없다는 잘못된 결론으로 나아갔다는 것이다.

개연성과 참의 상대적 가치와 관련된 플라톤의 소피스트 비판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설명과 같은 취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비판이 소피스트 일반에 적용될 때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가지는지는 이 글의 한정된 범위에서 단정 내리기 어려운 문제이다. 최소한 『사부 논변』 1편에서의 안티폰이 객관적 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것에 대한 불가지론 혹은 상대주의를 주장하고 있다고 믿을 이유는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소피스트 비판을 정당화할 수 있는 두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한 가능성은 실제로 『사부 논변』 1편에서의 안티폰처럼 전적으로 실용적인 관심의 테두리 안에서 논쟁의 기술을 개발하고 연마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의 힘(*dynamis*)이 가지는 존재론적, 인식론적 함축을 주장한 소피스트들이 존재했을 가능성이다. 어떤 사람이 반론의 기술(*antilogikē*)이 제공하는 힘에 매료되었다면, 그가 이 세상에 확고한 참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될 강한 유혹을 느끼게 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²⁶⁾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강력한 인식론적 논제로 나아간 소피스트들이 존재했었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비판은 이들을 향한 것이었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입장은 『사부 논변』 1편을 그 비판으로부터 면제시킨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그 비판이 보다 포괄적으로 『사부 논변』 1편의 내용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 역시

26) 『파이돈』에서 소크라테스가 소위 반론적 논변으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바로 이 점이다. “반론적 논변들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은, 자네가 알듯이, 결국에는 자신들이 가장 지혜로워졌고, 오직 그들만이 사물들이건 주장들이건 그것들 중 어떤 것도 온전하거나 안전하지가 않으며, 있는 것들 모두가 말 그대로 에우리포스에서처럼 오락가락 하면서 한시도 어딘가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했다고 생각하지(90c).”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그 비판이 『사부 논변』 1편에서 주장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내용 중에 내포되어 있는 어떤 위험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안티폰이 그 저작을 통해 의도했던 바가 어떤 개연성 논증에도 또 다른 개연성 논증으로 맞설 수 있는 기량을 연마하는 것이었다면, 그리고 그가 그것을 통해서, 그 기량을 연마한 사람이 반대의 입장이 더 사실에 가까움을 분명히 인정한 상황에서도 그 기량을 십분 발휘해 상황을 역전시킬 것을 기대하고 또 권장하고 있는 것이었다고 해 보자. 안티폰은 분명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지만, 그래서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만일 이것이 『사부 논변』 1편의 의도를 정확히 기술한 것이라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비판과 우려는 『사부 논변』 1편에도, 간접적으로이긴 하지만, 적용된다고 말할 수 있어 보인다. 진실의 발견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결여한, 오로지 상대의 논증에 맞세우기 위한 개연성의 추구는 잘못된 것이고 위험한 것이라는 점에서 말이다.

투 고 일: 2013. 01. 25.
 심사완료일: 2013. 02. 14.
 게재확정일: 2013. 02. 15.

전현상
 서강대학교 철학과

참고문헌

- 김남두, 「소피스트 안티폰에 있어서 법과 자연(自然)」, 『서양고전학연구』 2, 1988, 123-139.
- 김현, 『위대한 연설』, 인물과 사상사, 2008.
- Carawan, D., *The Attic Orators*, Oxford, 2007.
- Cole, T., “Who was Corax?”, *Illinois Classical Studies* 16 (I-2), 1991, 65-84.
- Due, B. *Antiphon: A Study in Argumentation: Museum Tusculanum*, 1980.
- Edwards, Michael J. “Antiphon and the Beginnings of Athenian Literary Oratory.” *Rhetorica: A Journal of the History of Rhetoric* 18, no. 3, 2000, 227-42.
- Gagarin, M. “The Nature of Proofs in Antiphon.” *Classical Philology* 85, no. 1 (1990), 22-32.
- _____, “Probability and Persuasion: Plato and Early Greek Rhetoric” in Worthington, I., (ed.) *Persuasion: Greek Rhetoric in Action*, New York, 1994, 46-68.
- _____, *Antiphon the Athenian: Oratory, Law, and Justice in the Age of the Sophists*: University of Texas Press, 2002.
- Gagarin, M., and P. Woodruff, *Early Greek Political Thought from Homer to the Sophists*: Cambridge, 1995.
- Gernet, L., *Antiphon, discours*. Paris, 1923.
- Grimaldi, W. M. A., *Aristotle, Rhetoric I & II: A Commentary*, 1993, New York.
- Guthrie, W. K. C., *The Sophists*, Cambridge, 1971.
- Innes, DC., “Gorgias, Antiphon and Sophistopolis.” *Argumentation* 5, no. 2, 1991, 221-31.
- Kennedy, G. A., *A New History of Classical Rhetoric*, Princeton, 1994.
- _____, (trans.), *Aristotle, On Rhetoric*, New York, 1991.
- Kerferd, G. B., *The Sophistic Movement*, Cambridge, 1981(한국어 번

- 역본: 커퍼드, 김남두 옮김, 『소피스트 운동』, 아카넷, 2003).
- Kraus, M. “Early Greek Probability Arguments and Common Ground in Dissensus.” *OSSA*, 2007.
- Maidment, K. J. (trans.), *Minor Attic Orators vol. 1*, Cambridge, 1941.
- Mirhady, D., “Torture and Rhetoric in Athens”, *Journal of Hellenic Studies*, 116, 1996, 119-131.
- Morrison, J. S., “Socrates and Antiphon”, *The Classical Review* 5, no. 1, 1955, 8-12.
- _____, “The ‘Truth’ of Antiphon”, *Phronesis* 8, no. 1 (1963), 35-49.
- Moulton, D. C., *The Argument of Antiphon’s Truth and It’s Late Fifth-Century Analogues*: Yale University, 1971.
- _____, “Antiphon the Sophist, on Truth.” *Transactions and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hilological Association* 103, 1972, 329-66.
- Pendrick, G. *Antiphon the Sophist*, Cambridge, 2010.
- Sealey, R. “The Tetralogies Ascribed to Antiphon.” *Transactions and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hilological Association* 114, 1984, 71-85.
- Sprague, R. K. (ed.), *The Older Sophists*, Indianapolis, 2001.

ABSTRACT

Probability Argument and Antiphon's *Tetralogy 1*

Chun, Hun-Sang

The objective of this article is to consider the meaning and validity of Plato's criticism that the Sophists valued probability [*eikos*] more than truth [*alētheia*] by examining Antiphon's *Tetralogy 1*. *Tetralogy 1* contains richer instances of the so-called 'eikos argument' than any other texts ascribed to the Sophists. This makes *Tetralogy 1* a crucial source of data for making a fair judgment on the Sophists' view on probability and Plato's related criticism. In this article, I first discuss briefly two general issues concerning the identity of Antiphon and the authenticity of the *Tetralogies*. A close examination of *Tetralogy 1* follows, with special attention given to Antiphon's views on the relative value of probability and truth. On the basis of this examination, I argue that, at least in *Tetralogy 1*, Antiphon is conscious of the limitations of the *eikos* argument and thus Plato's criticism cannot apply to this specific text. I also refute the claim of some scholars that a new, decisive proof for the alibi of the defendant is offered at the end of *Tetralogy 1*. In the final section, I examine a passage from Aristotle's *Rhetoric* where he relates the sophistic practice to confusion regarding two senses of probability. This passage, I suggest, indicates the subject of Plato and Aristotle's concern with regard to the Sophists' heavy use of the concept of probability.

Keywords: probability, truth, argument, sophist, Antiphon

